

다시금 활발해진 파시즘 논의

한국사회 분석부터 문학 속에 나타난 양상 추적까지 다양해

최성일 | 출판칼럼니스트

우리의 파시즘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출간되고 있는 파시즘 관련서는 우리의 일상과 의식에 숨겨져 있는 권력공학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내 학자의 독자적인 시각이 도드라진다. 여기에 파시즘 관련된 해외저작도 활발하게 번역돼 파시즘 논의의 격을 높이고 있다.

다시금 파시즘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아니, 우리의 파시즘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파시즘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발호해 전세계를 피로 물들였다. 한국 사회도 지난 세기 내내 파시즘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지만 파시즘 논의가 불거진 것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일이다.

'사회과학의 시대'인 1980년대 들어서야 파시즘 관련서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시기 파시즘 관련서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 준다. 우선, 파시즘은 사회과학의 '전공'으로 다뤄지기보다는 '교양' 과목 대접을 받았다. 휴머니즘에 입각한 반파시즘 수기가 널리 읽혔는데 반나치 운동을 그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잉게솔, 박종서, 청사)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당시의 파시즘 논의는 수입된 외국이론에 크게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편역서의 형태로 출간된 《파시즘 연구》(서동만, 거름), 《자본주의 위기와 파시즘》(김세균, 동녘) 등이 파시즘 입문서 구실을 했다.

'일상적 파시즘'과 '부드러운 파시즘'론 등장해 이에 비하면, 최근의 파시즘 논의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파시즘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 학자의 독자적인 시각이 도드라진다. 또, 파시즘을 매개로 문학을 탐구하는 작업도 활발하다. 여기에 파시

즘 관련 해외저작의 번역 소개도 눈에 띈다.

새천년 파시즘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은 《우리안의 파시즘》(임지현 외, 삼인)이다. 계간 《당대비평》이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같은 제목의 특집을 중심으로 엮은 이 책은 단박에 파시즘을 한국 지식계의 중요 의제로 부상시켰다. 이 논의를 주도한 임지현 교수(한양대 사학과)는 '일상적 파시즘'을 내세운다.

임교수가 말하는 일상적 파시즘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굴종하게 만들어 일상 생활의 미세한 국면에까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규율, 교묘하게 정신과 일상을 조작하는 고도화되고 숨겨진 권력 장치로서의 파시즘"을 가리킨다.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는 《시사인물사전·11》(인물과사상사)에서 '부드러운 파시즘'론을 개진한다. 부드러운 파시즘은 '파시즘적'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언론 권력의 속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언론권력은 기본적으로 '시장(市場)권력'이기 때문에 권력 행사 방식이 부드럽다"는 것이다. 또, 강교수는 부드러운 파시즘 체제가 문화적으로는 '위선과 기만'의 체제라고 지적한다.

《부드러운 파시즘》(강준만 외, 인물과사상사)은 히틀러, 뮌헨리니, 프랑코 등의 '파시스트 삼총사'를 해부하고, 파시즘에 동조하는 대중의 심리를 명쾌히 분석한 에리히 프롬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득재 교수(대구 효성카톨릭대 노어노문학과)의 《가족주의는 야만이다》(소나무)에서 파시즘은 '가국(家國)체제'라는 돌연변이로 나타난다. 이교수는 한국 사회를 파시스트의 사유장으로 본다. 파시스트가 되길 거부하는 주체는 "일탈자, 범죄자, 정신병자, 비행 청소년, 왕따, 뼈따이, 날라리 등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는 것이다.

위선과 기만의 파시즘 체제 비판적으로 해부해 《문학 속의 파시즘》(김철 외, 삼인)은 20세기 한국인의 삶을 규정할 가장 강력한 사회기구의 본질이 파시즘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근대문학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다. 3부로 이뤄진 이 책의 1부는 문학사 서술 방법론과 미학 이론의 측면에서 파시즘과 문학의 관련성을 다뤘다. 2부는 앞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식민지 시기 작가와 작품을 분석한다. 주된 분석 대상은 춘원 이광수다. 3부는 해방 이후의 문학을 파시즘과의 연관성 아래 검토했다.

'극우 파시스트 연구'라는 부제가 붙은 《네 무덤에 침을 뱉어! (전2권)》(진중권, 개마고원)에는 두 명의 소설가가 등장한다. 진중권씨는 특유의 풍자적 문체로 소설가 이문열과 이인화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최근 출간된 《유럽의 파시즘》(김수용 외, 서울대출판부)은 이데올로기와 문화의 관계를 짚고 있다. 국내 독문학 전공 교수들이 함께 지은 이 책은 파시즘 입문서 형식을 취했다.

최근 번역된 《트로츠키의 반파시즘 투쟁》(레온 트로츠키, 박성수, 풀무질)은 레닌과 함께 러시아 혁명을 지도한 트로츠키가 1930년대 초반 집중하는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한 글을 엮은 것이다. ●